

10/12(화) 욥기 묵상 5

욥기 2:11-1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욥에게 벌어진 엄청난 고난에 대한 욥의 지인, 친구들의 반응과 더불어 욥기 3장에서부터 앞으로 전개될 그들과의 논쟁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의 말이 어긋난 사탄은 본문에서 이제 더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

본문 11절은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 욥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11절, “**그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기서 ‘그 때’라는 것은 ‘욥이 재앙으로 인해 모든 소유물과 자식들까지 다 잃고 그의 건강마저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지인들이 이들 세 명 뿐이었던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욥을 방문했지만 성경이 이들의 방문 기록만 남긴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을 방문한 것이 세 명 이상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엘리후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데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진귀한 금이시다’라는 뜻으로 창세기 36:11절에 보면 데만이 엘리바스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창 36:11,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창 36:4상, “**야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욥이 에서의 후예들이 살았던 에돔 땅 우스 지역에 살았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가능성 있는 추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빌닷은 ‘하다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수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첩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창 25:1-2,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셋째로,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소발은 ‘어린 새’라는 뜻이고 나아마는 ‘아리따움’이라는 뜻인데 가인의 후예 중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창 4:22,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이들이 욥이 살던 에돔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

욥의 친구들은 서로 약속을 하고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 욥을 멀리서 보았을 때 그가 욥인 줄 알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 이유는 욥이 당한 고난과 피부병으로 인해 건강이 상하고 물골이 수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또다른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간 시점이 욥이 모든 재앙을 당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이 그의 용모를 못 알아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알아보고 나서 일제히 크게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게 됩니다(12절, “**눈을 들어 머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같은 행위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행하는 모습으로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밤낮 칠 일 동안이나 할 말을 잃은 채 욥의 곁에 있었습니다(13절,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비록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줄 목적을 가지고 그를 방문했지만 그들은 욥의 처참한 상태를 보자 아무런 위로를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입을 열어 욥에게 해주었던 위로의 말이 오히려 욥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들이 칠일 간 침묵했던 것이 욥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고난과 환란을 당하는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들을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할 때조차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또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벧전 3:15-16,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불가리아를 기도:** 불가리아는 27개 국이 속한 유럽연합에서 코로나19사망률이 체코와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EU 내 다른 국가들이 평균 70%에 가까운 접종 완료율을 보였지만, 불가리아는 인구 700 만 명의 인구 중 겨우 20%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을 뿐이다. 이는 국민들의 낮은 의학지식과 백신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 정부가 국민들을 잘 지도하여 방역과 백신 접종율을 올리고, 열악한 의료 상황속에서 사역하는 소수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뉴헤이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남아공 김영무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